

## 커지는 탄핵 민심... '한·한 위헌 통치' 반발 확산

〈한동훈·한덕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 尹 탄핵 불발 거센 후폭풍...야, 14일 2차 탄핵안 처리 예고 해외 언론도 "계엄 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경제 피해 우려"

계엄 파문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계엄에 관여했던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과 함께 협의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고, 탄핵 반대 진영도 연일 도심 집회를 준비하며 '사회 양극단 대립'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계엄 파문이 향후 경제적 피해도 크고, 그 고통은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진화 나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한 대표와 함께한 담화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권력 나눠 먹기로 탄핵 회피"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날 발언을 '2차 내란'으로 규정했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내란 수사 대상이며 한 대표는 위헌적 국정운영 권한

#### '비상 계엄 사태' 특별취재단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박진표 정치부 부장·김해나 정치부 기자  
정병호·유연재·김다인·장혜원 사회부 기자  
김진수 사진부 차장  
서민경 디지털부 기자

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이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면서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의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가능성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조개기' 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 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 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 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추가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총리와 박성재 법무

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 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0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 편히 못 모셔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계엄의 대가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6일(현지시간)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사실상 '정상의 고수'를 상징하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계엄과 탄핵 논란이 모든 정국을 휩쓸면서 여야의 예산 처리도 난항이 예상되며 조주의 준예산 편성도 우려되고 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의 이탈행령도 우려되고 원·달러 환율도 초근 1주일 새 24.5원 뛰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도 유동성과 자본비용 등을 매일 비상점검하는 등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거세지는 '탄핵' 민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 불성립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인 지난 7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에도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이 불발됨에 따라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8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지역민들 1500여명이 모였다. 전국 촛불행동은 9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출구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5·18단체들로 구성된 5·18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상정할 경우 또다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강 작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 '광주'는 시공을 건너 되돌아오는 현재형 2024년 한국서 또 계엄상황 전개 큰 충격

한강 작가는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함라윈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편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소년이 온다)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강은 '빛과 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8살 때 썼던 시의 내용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작품 세계, 차기작 등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광주 출신 한강의 강연은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됐다.

한강은 "소년의 한국어 제목은 '소년이 온다'이다.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며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희고 무례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곁을 곁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1월 가족과 함께 광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몇 해가 흘러 서기에 꽃혀 있던 '광주 사진첩'을 보게 됐다.

한강은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 근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당시 정권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인해 왜곡된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제작해 유통한 책이었다"며 "나는 그 사진들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가졌다고 했다.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은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다가왔다.

작가는 그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대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6일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연계된다. 그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작가로서의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한국분도 그랬을 것 같다"며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79년 말부터 계엄 상황에 대해 공부



를 했는데 2024년에 계엄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젊은 경찰들 젊은 군인들의 태도가 인상 깊었다는 말도 전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론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낙인찍히고 오해를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채식주의자"는 질문으로 가득한 소설인데 유해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를 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며 "책은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는 책을 읽으며 공존하고 다른 이를 이해하는 법,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사서 교사들의 권한의 중요성과 아울러 도서 폐기나 열람제한은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한강은 강연에서 차기작에 대해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뒤 3년이 흐른 지금, 아직 다음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에게 내 삶을 잠시 빌려주려 했던, 무엇보다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힐'과 형식적으로 연결되는 소설"이라고 소개했다.

작가는 이날 '언어의 삶'로 연결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한강은 오는 10일 시상식 무대에 올라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에게 받을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1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배워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광주석산 고등학교(1990년 졸업), 전남대 법학과(90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장  
■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서울북부지검·제주지검 검사  
■ 광주시검·광주지검 목표지정 검사  
■ 통영지정 형사1부장·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 수원지검·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검사  
■ 창원지검 진주지정청  
■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봉준 올림**  
I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I 대표전화 : 02-2046-1300 I 직통전화 : 02-2046-0674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